

목포 삼진항·보성 율포항·신안 생김항 ‘국가어항’ 되나

해수부 예비 지정...전남도,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 기대

목포 삼진항, 보성 율포항, 신안 생김항 등 3곳이 국가어항으로 예비 지정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들 항을 국가어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해수부의 1·2차 평가를 통해 상위 5개소에 포함된 목포 삼진항(1위), 보성 율포항(2위)의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 본격적 개발에 들어간다.

신안 생김항(6위)은 차후 순차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4~8년간 5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목포 삼진항에는 476억원을 들여 ▲물양장(750m) ▲방파제(250m) ▲호안(1km) ▲준설(25만 4000㎡) 등을 추진하면서 어선 수요 과부하와 대형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인근 수산식품 수출단지과 낚시복합타운 등

과 연계해 종합수산업지원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 율포항은 445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 및 확장(560m) ▲이안제 설치(220m) 등 상시 접안이 가능하고 피항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된다. 현재 추진 중인 율포해양복합센터, 수산 콤플렉스 등과 연계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어항으로 예비 지정되면서 지역 수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민 생활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대중 대통령 생가’ 전남도 문화유산 지정

장흥 대원사 소장 불교전적·나주 여제각 등 모두 7건

전남도가 신안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여수 달마사 소장 예법미타도량참법 권6-10, 장흥 대원사 소장 불교전적 등 7건을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전남도 문화유산 가운데 신안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1924년 출생한 김대중 대통령이 하의보통학교(4년제)를 다니다가 1936년 목포로 이사 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던 곳이다.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키웠던 공간으로, 생가는 역사 인물 유적 및 섬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갖췄다.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1924-2009)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수호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여수 달마사 소장 예법미타도량참법 권6-10은 불교 의식집으로, 예법문(禮念文)과 참법(懺法)을 집성한 것이다.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아미타불에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죄업을 참회하는 법회의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여수 달마사 소장본은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초간본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책을 펴낸 사람과 날짜, 장소 등을 기록한 간기가 잘 남아 있어 불교 문화사와 인쇄문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 대원사 소장 불교전적은 기존 도 유형유산 339호 장흥 대원사 소장 실험담요해에 동화사판묘법연화경, 보문사판 묘법연화경, 선원제집도서 등 총 3책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추가된 불교 전적은 15세기 간행된 것으로 인쇄 상태가 양호하며 잔존본이 희귀해 불교사 및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나주 여제각’, ‘보성 광주씨씨 영모재’, ‘강진 황대중 정려유적’, ‘강진 김억추 신도비와 현무묘’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박우욱 전남도 문화유산정책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을 이끈 김대중 정신의 출발점이 된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 지정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그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순천 금룡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 ▲해남 방죽샘과 중수비 ▲해남 남천교 및 어성교 중수비와 정류정 표석 ▲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나주 적서정 ▲장흥 열화재 ▲장흥 수의봉 위원량 땅구 암각사문 8건을 문화유산 지정 예고했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달 앞두고 8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컬처스퀘어에 시민들에게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등을 알리는 홍보관이 개관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여작가들이 홍보관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 모두의 울림 (PANSORI -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개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꿀잼도시 만들자” 광주시·관광공사 맞손

관광객 유치 활성화 워크숍...관광코스 개발·명소 홍보 등 논의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찾고 머무르고 싶은 꿀잼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여행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에이앤엔티·남해관광여행사 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상품을 점검하고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광주만의 매력을 담은 여행 상품을 발굴해 ‘연간 도시 이용인구 3000만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7세대 나 홀로 여행객(FIT)을 위한 광주의 숨겨진 명소 SNS 홍보·단체여행객 비율이 높은 대안·메트랩 관광객 대상 K-컬처 관광코스 개발·호남권 광역 관광 루트 개발 등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관광상품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스포츠와 예술 관광, 양림동 순례, 5·18 테마 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지역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프로그램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광상품을 준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관광, 예술관광, 양림동 순례, 5·18 테마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 지도자 월급 ‘천차만별’...호봉제 체계 정비 시급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토론회

광주시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임금이 천차만별이어서 100% 호봉 인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낮은 급여’인 만큼 안정적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 7일 이명노 광주시의원과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층 랩탈라홀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모색 토론회’를 열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직을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낮은 급여’(48.1%)였다. 정래성 없음(20.8%), 높은 업무 강도(1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시설 종사자 현 보수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인건비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39.7%)로 꼽았다. 이어 시설 유형별 보수 격차가 큰 점(27.6%), 직급 내 호봉 간 급여 차이가 적은 점(12.1%) 등의 순이었다.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 지도자 간 시설별 단일 임금 체

계 기준에 따른 100% 호봉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청소년 시설 간 협업을 통해 처우 개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근무 현황과 월급을 공유한 최엘라 회장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팀장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관별 평균 퇴사자는 3명으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연차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무자와 동일한 임금과 최저시급에 준한 임금이 퇴사의 큰 비중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근무자 호봉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